

‘도지사 관사’ 새로운 문화공간 첫 선

오늘 일반에 공개... ‘하얀양옥집(하양집)’으로 이름 짓고 ‘들턱전’ 미술 전시

구 도지사 관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14일 일반에 공개된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지사 관사를 ‘하얀양옥집(하양집)’으로 이름 짓고, 미술전시 ‘들턱전’을 통해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들턱전’은 손님을 맞이하는 ‘집들이’의 순우리말로, 새롭게 단장한 하얀양옥집(하양집) 개소 전에 맛있는 음식 대신, 지역 청년 예술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는 ‘2024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 예술작가 중 전시 목적에 부합하는 시각 분야 8명이 참여, 회화, 조소, 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본래 생활공간이던 도지사 관사 내부 벽면을 이미지화 해 작품성을 더했고, 도민과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감정 종이테이프라는 단순한 재료로 거실, 서재, 주방 등 일상적 공간을 연출하고, 이와 함께 그 공간에 어울리는 작가들의 작품을 배치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하얀양옥집(하양집) 첫 집들이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

들의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도지사 관사는 전주한옥마을 내 이층 양옥집으로 1971년 지어져 올해로 53년이 됐다. 당시 ‘하얀집’으로 불렸다.

새이름 ‘하얀양옥집(하양집)’은 이제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오는 21일 정식 개관한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이소영(40, 서울) 씨가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 이소영씨

‘이별가’ 열창 극찬 받아... 상금 5000만원 수여·축하공연 펼쳐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이소영(40, 서울) 씨가 명창부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경연에서 이씨는 판소리 춘향가(春香歌) 중 이도령과 춘향의 이별 대목인 ‘이별가’를 열창했으며, 이씨는 올 춘향국악대전에 처음으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을 깊은 애원성이 담긴 소리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서울 출신인 이씨는 아버지의 권유로 10

세 나이로 소리에 입문, 국립전통예술고를 거쳐,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를 졸업했으며, 조소녀, 김차경 명창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았고, 대통령상과 상금 5,000만원을 수여받았고, 13일 오후 1시부터 요천로 메인무대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한편 이씨는 수상 소감에서 “대회에서 불렀던 ‘이별가’를 사사해 주신 분이 바로, 남원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차경 명창이라며, 제자인 자신도 첫 출전에 대상을 수상해 너무 박차고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조훈화 석사과정생, 제1회 세계 양금대회 ‘금상’

12개국 연주자 참석 중국 칭다오에서 열려... ‘혼돈’ 연주 일반조 1등상

전북대학교 조훈화 석사과정생(한국음악학과)이 최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양금대회 일반조에서 1등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12개국의 연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 양금 대회다.

이 대회에서 가야금을 전공하고 있는 조훈화 석사과정생은 양금연주자 윤은화가 작곡한 ‘혼돈’을 연주했다. 심사위원들은 “대회 참가자 중에서 제일

터치감이 섬세하고, 연주곡에서의 조훈화 연주자는 감성표현이 월등히 뛰어났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425명의 양금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세계 양금 연주’라는 이색 기네스 도전이 펼쳐졌는데, 조훈화 석사과정생도 이에 참여해 도전에 성공하는 이색적인 경험도 쌓았다.

조훈화 석사과정생은 “첫 세계양금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해 정말 기쁘고, 세계양금연주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연주해 기네스



북에 등재된 것 또한 정말 감동이었다”며 “앞으로 해외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역량을 늘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여성 농악 명인 4명에 감사패 전달

여성농악단 장봉녀·배분순 명인·춘향 여성농악단 박복례·노영숙 명인

남원시에서는 지난 12일, 남원 여성농악단 장봉녀, 배분순 명인, 춘향 여성농악단 박복례, 노영숙 명인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가 남원 농악의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여성 농악의 전통을 계승해 온 명인에게 감사패를 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남원여성농악단은 1959년 남원국악원에서 창단, 전국 최초의 여성농악단으로 이듬해 전국 농악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실력을 인정 받았으며, 1960년 창단된 춘향여성농악단 역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전라북도 대표팀으로 참가했다.

이 2명의 농악단은 과거 춘향제 제창부터 길놀이까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남원을 알리는 것은 물론 여성 농악이라는 독자적 문화를 형성하며 전국에 여성농악단의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4명의 명인은 여성농악단의 역사와 함께한 2023년 연희단팔산대와 함께 서울남산국악당에서 <무풍> 공연을 펼쳐 남원 여성 농악을 다시 한번 전국에 알렸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통문화의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신 명인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날 이렇게 남원 농악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남원 농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몽골 오랑헬헤 어린이 공연단, 남원 춘향제 참여

남원시는 ‘제94회 남원춘향제’에 몽골 수도 제60년 초중고등학교 오랑헬헤 어린이 공연단이 길놀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과 활기찬 울동으로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남원시는 전북대 남원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확정 짓고 캠퍼스 유학생 유치 위한 글로벌 인재 확보에 나서서, 그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몽골 울린바토르 소재 몽골 수도 제60년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와 교육 및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춘향제에 초청된 오랑헬헤 어린이 공연단은 몽골의 전통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공연단으로,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음악, 전통무용 공연을 통해 몽골 문화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전달했다.

오랑헬헤 어린이 공연단은 지난 11일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합동공연을 시작으로 12일 단독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많은 환호를 받았고,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전통의상을 입고 대동길놀이에 참여했으며, 14일 남원국악예술고와 문화교류 협약 및 기념공연을 끝으로 4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간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판놀음 별별창극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제6회 2024 판놀음 별별창극’을 25일, 29일, 6월 1일, 6월 8일에 예원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특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창극 작품을 통해 전통 판놀음을 부활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연은 네 차례에 걸쳐 선보이며, 25일에는 ‘소리뮤지컬 이도’를, 29일에는 가족연희극 ‘물을 쫓는 사냥꾼’을 만날 수 있다. 이어서 6월 1일에는 판소리음악극 ‘정조가-어린 왕 이야기’, 6월 8일에는 판소리음악극 ‘SHE: 그녀들의 이야기’가 공연될 예정이다.

각 공연은 60분에서 100분가량의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요일 공연은 오후 3시에, 수요일 공연은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고 전 좌석 무료로 진행되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이나 전화(063-620-2329)로 예약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매진 예감’ 6월 태권스테이 15일부터 판매

태권도를 활용한 스포츠 관광 상품인 태권스테이가 15일부터 6월 상품을 판매한다. 지난달 중순 진행된 5월 태권스테이는 단 하루만에 매진되며 벌써부터 6월 예약 가능 일자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이 기획·운영하고 있는 태권스테이는 태권도와 문화 체험, 숙박과 식사, 태권도원 모노레일 탑승, 전북특별자치도 내 60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전북투어패스권까지 포함한 비용이 1인 5만 5천원*으로, 4인 가족이 1박 2일간 20만 원대에 태권도를 비롯한 각종 체험이 가능한 여행 상품이다.

6월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태권스테이를 진행한다. 티몬과 기프트립 등 소셜 커머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 4일과 5일, 11일과 12일 진행한 5월 1·2주차 태권스테이에 참가자들은 4백 명을 넘겼



5월 1주차 태권스테이 진행 모습(힐링태권체조)

으며 3·4주차 참가자는 각 3백여 명에 달한다. 6월에는 만들기 체험과 가족 운동회, 고단자 특별 프로그램, 품새 레슨, 태권 댄스 켈리지 등 매주 다른 체험형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스테이는 가족, 친구, 동창 등 지인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스포츠 관광 상품으로 여름 휴가에 있어서도 최고 상품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태권도를 체험하고 태권도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개성 강한 목관악기 매력 만나요”

양상블 로코 제2회 정기연주회 18일 한국소리문화전당서 개최

개성 강한 목관악기만의 공연이 전주에서 열린다. 양상블 로코 ‘제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8일 오후 6시 한국소리문화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인상주의 작곡가 M.Ravel의 Le tombeau de Couperin(쿠프랭의 무덤), M.Arnold의 Three Shanties(세 개의 뱃노래), 독일 작곡가 F.Danz의 Wind Quintet(목관 5중주), P.Hindemith의 Keine Kammermusik No.2(작은 실내악)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목관 5중주는 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구성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롭고 매력적인 장르로 소개될 전망이다.

또 목관악기 특유의 정제하고 따뜻한 음색을 통해 아름다운 봄날의 클래식을 한껏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양상블 로코는 서울, 경기, 전주, 광주 등 국내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젊은 목관 연주자들로 플루트(Flute) 반준현, 오보에(Oboe) 이승형, 클라리넷(Clarinet) 신재훈(리더), 호른(Horn) 김하늘, 바순(Bassoon) 박병준 등이 활



양상블 로코

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창단연주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저마다 개성 강한 목관악기만의 매력을 무대에 한껏 보여 관객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복 입고 가족사랑 찰칵’ 성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문화가 담긴 특별한 효(孝)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한복 입고 가족사랑 찰칵’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행사는 전당 2층에 마련된 KTCC:ON 스튜디오에서 한복을 입고 가족사진을 찍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4년의 의미를 담아 24가족을 계획해 모집했지만 이후 많은 문의와 호응이 이어져 2가족을 추가 모집해 모두 26가족 100여 명의 사진 촬영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전당은 잘 나온 가족사진 3장을 인쇄해 액자에 담아 선물했으며, 모든 사진 촬영본은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는 등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이번 기회에 모일 수 있어 좋았다”며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없었는데 전당 덕분에 큰 선물과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또 “일상에서 한복을 입을 일이 없었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한복을 입어 설레었고, 가족 간에 많이 웃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